고전 중국어 오노마토페의 일본어 수용에 관한 연구*

- 명치기 문헌에 나타난 첩어형태의 용례를 중심으로 -

현영미**
sampras789@naver.com
이경규***
lk5120@deu.ac.kr

<目次>

1. 들어가며
2. 선행연구의 검토
3. 명치기 문학작품의 첩어형 한어 오노마토페 사용 양상
4. 첩어형 한어 오노마토페의 전거 유무와 어의(語義)변화
5. 나가며

主題語 : 한어(Chinese character), 오노마토페(Onomatope), 첩어(Reduplication), 성립(foundation), 수용(accept), 명치기(Meiji period), 전거(reference)

1. 들어가며

오노마토페의 사용은 평소 의식하지 않고 감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렇게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오노마토페는 다양한 장르에서 활용되고 있다. 현대 일본어의 오노마토페의 표기는 가나표기가 당연시되고 있지만, 명치기의 문학작품을 살펴보면 한자로 표기된 경우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일본어의 오노마토페에는 출자(出自)에 따라 고유어 오노마토페와 한어 오노마토페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어 오노마토페의 출자가 되는 고전 중국어에 있어서는, 최고(最古)의 가요집인『時經』이 성립된 시대부터 주로 2음절 유형의 오노마토페가 사용되었다. 특히,「堂々」「歷々」와 같이 1음절 한어를 중첩한 형태와「自然」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4S1A5B5A07040663)
** 동의대학교 인문대학 일어일문학과 강사
*** 동의대학교 인문대학 일어일문학과 교수, 교신저자

「全然」과 같이 한어접사 「-然」을 취하는 경우는 다종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일상어로서 일본어에 정착한 상태라 할 수 있다. 오노마토페에 대한 국내외 연구는 현재까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그 대부분이 교육적 측면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고유어 오노마토페에 편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어계 오노마토페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취지에서 비롯되었다.

한어 오노마토페 유형 중, 본 연구에서는 명치기 문학작품 속 첩어형태의 용례를 대상으로 문장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특징적인 면을 살피고자 한다. 또한 중국 고전문헌 및 일본 고전문헌의 용례를 수록하고 있는 대사전류를 토대로 그 전거(典據)의 유무를 밝히고, 수용과정에서 의미용법에 변화를 보인 개별어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첩어형 한어 오노마토페에 주목하는 이유는 첩어형이 고전 중국어 오노마토페의 대표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고유어 오노마토페의「ABAB형」[1]이 음형상 들어맞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수용되기 쉬운 것이라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2. 선행연구의 검토

고유어 오노마토페에 대한 음성·형태적 유형이나 통시적인 변화 양상에 초점을 둔 연구는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한어 오노마토페에 대한 종래의 연구는 대부분의 경우가 고유어 오노마토페에 대해 논할 때 언급되는 정도이다.

한어 오노마토페의 명칭에 대해 角岡賢一는 일본어가 중국어로부터 차용(借用)한 의태어를 「擬似オノマトペ(의사 오노마토페)」라고 칭하고 있는데, 차용된 중국어 의태어는 각자 언어에 있어 표현하는 의미는 다를 수 있지만, 중일 양 언어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어휘라고 설명하고 있다.[2]

중국어 문법에서 의성어는 존재하나 의태어라는 품사의 범주는 없다. 즉, 일본어의 의음어에 해당하는 「상성사(象声詞)」와 「의성사(擬声詞)」라는 명칭은 있지만, 의태어에 해당하는 중국어 품사는 「형용사」가 가장 근접한 범주에 속한다.[3] 중국어에 있어 오노마토페의 조어법은 고전 한시문집인 『詩經』[4]에서부터 사용되어 왔으며, 일본으로 전해진 것은 중세시대 이후

1) キラキラ、ドキドキ、ゴロゴロ 등의 기본어기 반복형.
2) 이외에도 연구자에 따라 「한어 의음어·의태어」「한어 음상징어」「음상징 한어」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한어 오노마토페」라고 칭하겠다.
3) 崔玲愛(2007)「『詩經』「国風」疊語의 音聲象徵 硏究」『中國語文學論集』第47號, p.84

부터의 문헌에서 「タリ활용 형용동사」로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5)]

한어 오노마토페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 중, 형태적인 측면에서 고찰한 연구자로는 鈴木修次의 한어 오노마토페의 일본어 음형 분류와 한자의 자수에 따라 분류하고 있는 山田孝雄의 논문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鈴木修次(1979)[6)]는 주로 한어의 字音을 子音과 母音으로 나누었을 때 「○ん○ん」「○う○う」「○い○い」「○つ○つ」「○く○く」의 다섯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중, 「○う○う」와 「○ん○ん」은 전형적인 형태라고 지적하면서, 이 두 가지의 음형은 오십음도 중 몇 가지를 제외하고 대부분 적용시킬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山田孝雄(1940)[7)]에 의하면, 3자 이상의 한어의 대부분은 관용어나 물건명, 약품명, 질병명, 관직명 등의 명사로 수용되어, 부사로 사용되는 용례는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2자 한어를 중심으로 아홉 가지로 유형을 나누고 있다. 이러한 유형은 모두 일본어에서 조사 「ト」 혹은 설명존재사 「タリ」가 동반되는 성질로 수용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8)]

新井理絵(2010)[9)]는 근대 문학 작가이며, 명치기부터 쇼와기까지 약50년에 걸쳐 작품 활동을 한 徳田秋声의 작품을 중심으로 오노마토페 표기의 변천과정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명치기는 아직 에도시대의 한자 영향 및 漢字片仮名交じり文이 성행하여, 오노마토페의 한자표기 비율도 높게 나타났으며, 다이쇼기를 거쳐 쇼와기가 되어감에 따라 漢字平仮名交じり文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한자표기가 쇠퇴한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나아가 「整然」「恍然」과 같이 한자로 표기된 오노마토페가 점점 히라가나 표기로 변해가는 것, 「放心(うっかり)」와 같이 히라가나 표기와 혼동되어 사용한 것, 그리고 「森(しん)」「吃驚(びっくり)」와 같이 한자 표기가 계속해서 사용된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

中里理子(2000)[10)]에서는 『浮雲』를 중심으로 명치기 전기 작품을 대상으로 하여 고유어와 한어 오노마토페의 사용상황을 개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유어 오노마토페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을 한어 오노마토페로 보완하고 있다는 점과 한어 오노마토페 중에서도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례를 중심으로 언문일치로 수용하려고 했던 시도가 엿보인다고 설명하고 있다.

---

4) 기원전 10세기에서 6세기에 걸쳐 성립된 시집.
5) 鈴木泰(1982)「タリ活用形容動詞の通時的変化傾向とその要因」『武藏大学人文学会雑誌』第13巻, p.90
6) 鈴木修次(1979)「擬態語の中の漢語」『漢語と日本人』みすず書房, pp.139-179
7) 山田孝雄(1940)『国語の中に於ける漢語の研究』宝文官出版
8) 본 연구에서는 한어 오노마토페의 판단여부에 있어 鈴木修次의 일본어 음형 분류법과 金田一春彦의 분류법을 참고로 하였음을 밝혀둔다.
9) 新井理絵(2010)「近代オノマトペの表記の流れについて-徳田秋声の作品を中心に-」『日語日文学研究』第74輯
10) 中里理子(2000)「明治前期の和語系・漢語系オノマトペについて-『浮雲』を中心に-」『上越教育大学研究紀要』第19巻 第2号, pp.805-818

이외에 劉領(2004)[11]는 한어 오노마토페 「茫々」「颯々」「悠々」를 대상으로 일본어로의 수용 과정과 의미변화에 대해 일본과 중국의 다양한 문헌을 토대로 실례를 통한 고찰을 하고 있다.

오노마토페 사전류 또한 1970년대부터 2000년 후반까지 출판되고 있다. 하지만 한어 오노마토페의 용례를 수록한 사전류를 확인해 보면, 2000년대 이전에 출판된 사전에서는 표제어로 등재된 경우는 드물다.

<표 1> 한어 오노마토페의 사전별 수록여부

사전 \ 용례	轟々 (ごうごう)	沸々 (ぶつぶつ)	茫々 (ぼうぼう)	悠々 (ゆうゆう)	歴々 (れきれき)
天沼寧(1974)	×	×	×	×	×
阿刀田・星野(1995)	○	×	×	×	×
飛田・浅田(2002)	○	○	○	○	×
山口仲美(2003)	○	×	○	×	×
小野正弘(2007)	○	○	○	○	○

2000년 이전에 출판된 오노마토페 사전의 해설을 살펴보면 「漢字書きを主体としていた漢語は、特別のもののほか、擬音吾･擬態語としないことにした」, 「この辞書では、和語のものをもっぱら取り扱う」라며, 한어 오노마토페를 표제어로 수록하고 있지 않다. 이처럼 한어 오노마토페는 한자의 의미를 지닌 채 부사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오노마토페로서 인정 여부와, 고유어 오노마토페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것을 문제로 종래의 많은 사전류에 적극적으로 수록되어 있지 않고 참고정도로 하고 있다. 출간된 오노마토페 사전 중 2007년도 小学館에서 출판된 小野正弘의 『日本語オノマトペ辞典』에서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데, 총 225語의 첩어형 한어 오노마토페를 수록하고 있다.

이상 한어 오노마토페의 국내외 연구동향을 살펴보았는데, 한어 오노마토페에 초점을 둔 연구로는 국외 연구자 및 일본에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중국인 연구자에 한정되어 있으며, 劉領(2004)의 연구 이후로는 성과물이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중국어에 기인하고 있는 한어 오노마토페가 일본어로 수용되어 정착하는 양상을 고찰하고, 추후 한어 오노마토페의 한국어 수용양상과도 비교연구로 이어진다면, 개화기의 한국자료에 나타난 일본과의 오노마토페 교류 및 대조 연구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11) 劉玲(2004)「漢語オノマトペの受容に関する研究-AA(ト)型の語の意味変化を中心に-」筑波大学博士学位論文

3. 명치기 작품의 첩어형 한어 오노마토페 사용 양상

본 연구에서는 고전 중국어의 유래로 보이는 한어 오노마토페 유형 중, 기본어기를 반복한 첩어형 한어 오노마토페에 착목하여 전거 유무를 밝히고, 수용과정에서 의미변화를 보이는 경우를 고찰하고자 한다. 우선 한어 오노마토페의 유형을 선행연구에 의거하여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2> 어구성에 의한 고전 중국어의 오노마토페 분류

漢字一字		皎
漢字二字	接尾辭型	「~焉」：忽焉
		「~乎」：確乎
		「~爾」：莞爾
		「~然」：嫣然
		「~若」：沃若
		「~如」：突如
	疊語型	**碌々**
	双声型	恍惚
	疊韻型	模糊
漢字三字		嫣々然
漢字四字		阿容々々

종래의 연구에 의한 한어 오노마토페 분류는 한자 1자~4자로 대분류하고 한자 2자는 다시 접미사형과 첩어, 쌍성, 첩운의 형태로 세분화하고 있다. 이 분류법은 중국의 가장 오래된 시가집『詩經』에서 용법이 보여 실로 역사가 오래된 어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같은 한자를 반복하는 첩어형 한어 오노마토페만을 조사 대상으로 한 이유는 우선, 고유어 오노마토페의 대표적인 어형「ABAB형」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어, 모어 화자에게는 한어라는 의식이 약하기 때문이다. 또한 명치기 문학작품에는 첩어형 한어 오노마토페가 타 유형에 비해 실로 다양한 표기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연구의 진전에 따라 다른 유형의 한어 오노마토페 또한 검토해야 하겠지만, 이번에는 첩어형만을 고찰대상으로서 다루기로 하였다.

먼저, 조사대상인 명치기 문학작품에 사용된 오노마토페를 추출하여 표기별로 산출하면 아래의<표3>과 같다. (작품 배열은 발표연도순이다.)

<표3> 명치기 작품의 오노마토페 표기 양상

작품 / 표기	浮雲		罪と罰		多情多恨		新世帯	
	별개	비율	별개	비율	별개	비율	별개	비율
한자	171	42.2	67	41.1	162	84.0	81	35.7
히라가나	195	48.2	84	51.5	30	15.5	15	6.6
가타카나	39	9.6	12	7.4	1	0.5	131	57.7

명치기 문학작품의 표기방법은 각 작가만의 특징이 있으며, 출판사와의 표기체계 및 게재지의 형식에 따라 일률적으로 기술할 수 없다. 본고의 대상인 「浮雲」「罪と罰」「多情多恨」「新世帯」를 보더라도 각 작가에 따라 사용된 오노마토페 표기의 특징을 엿볼 수 있다.

먼저, 명치 20년 작품인 『浮雲』는 사실주의수법에 의한 언문일치와 심리묘사에 뛰어난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작가인 二葉亭四迷는 주인공 文三와 편을 거듭할수록 동화되어 가는 현상을 띠고 있으며, 文三의 갈등, 불안한 심리를 묘사하는 장면에 한어 오노마토페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浮雲』에서는 가타카나와 한자의 비율이 각각 48.2%와 42.2%로 나타나 가나표기의 용례 비율이 다소 앞서 있다.

다음으로 명치 25년 작품인 内田魯庵의 번역소설 『罪と罰』에서는 히라가나 표기가 69%로, 8.2%의 가타카나와 22.8%의 한자 표기에 크게 앞서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네 작품 중 오노마토페의 한자표기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명치 29년에 尾崎紅葉가 발표한 『多情多恨』으로, 玉村文郎(1973)[12]는 紅葉의 적극적인 한자사용과 당시 타 작가의 작품에서는 보이지 않는 한자표기를 특징으로 보고 있다. 또한, 紅葉 작품에서는 작가 독자의 개성적인 한자 사용법이 두드러진다고 지적하면서 중국 근세 백화소설의 용어용자가 다수 관찰되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13] 나아가 「つんと」「きりりと」「ぐいと」와 같은 오노마토페는 히라가나 혹은 가타카나로 표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多情多恨』에서는 「昂然」「呷と」「気凛と」와 같이 후리가나를 동반한 한자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경우는 紅葉의 식자(識字)와 취향이 투영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위의<표3>에서 알 수 있듯이, 속어(俗語)적 경향이 강한 오노마토페에 있어서도 88.3%에 해당하는 용례가 한자로 표기되어 가나표기와는 압도적인 비율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가타카나표기는 「チンチン」이 유일하였으며, 히라가나로 표기는 회화문이나 사물의 소리를 묘사하기 위한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12) 1900년 이전 문학작품 10편 중, 『다정다한』의 한자사용률은 1위이며, 1900년 이후 작품을 포함한 23편 중에서는 5위에 해당한다.(평균 362)

13) 예를 들면, 작품 속 문장 중, 고유어「しらき」「うそ」「まざまざ」의 한자로 「楛」「仮」「顕然」를 사용하여 표기하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다.

마지막으로 명치 41년에 발표된『新世帯』는 徳田秋声가 자연주의로 전환한 후 처음으로 집필한 중편소설로 당시『国民新聞』에 연재되어 호평을 받은 작품이다. 秋声는 오노마토페를 다용하기로 유명한 작가로『新世帯』는 타 작품의 3분의 1정도의 분량임에도, 오노마토페의 사용비율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먼저, 명치기 문학작품에 사용된 오노마토페의 실용례를 통해 가나표기와 한어 오노마토페 표기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ムシャクシャ】悶々(もんもん)

(1) 再三再四虚辞儀をさしてから、漸くに**ムシャクシャ**と頬鬚の生弘ッた気むずかしい貌を此方へ振向けて、

(2) 腹の立つまま、遂に下宿と決心して宿所を出た。ではお勢の事は既にすッぱり思切ッているか、というに、そうではない、思切ッてはいない。思切ッてはいないが、思切らぬ訳にもゆかぬから、そこで**悶々**する。

위의 문장은 오노마토페「ムシャクシャ」의 두 가지 의미용법으로 사용된 경우이다. 용례(1)의 경우에서처럼 무성하게 자란 구레나룻을 묘사하는데 있어「털 또는 잎 등이 무성한 형태로 이루어진 모양」의 의미를 가나로 표기하는 한편, 용례(2)의 문장에서는「화가 나고 기분이 맑지 않은 모양」을 나타내는 한어 오노마토페「悶々(もんもん)」으로 표기하여 의미를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한어 오노마토페를 통해 몸부림치며 괴로워하는 등장인물의 심정을 극대화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ががや】喧々(けんけん)

(3) 此時一群の百姓は**ががや**へ家から飛び出した。

(4) 三四人**喧々**高声で罵りながら此階子に上ツて来るらしい様だ。

위의 용례는 여러 사람이 떠들썩하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나타내는 오노마토페「ががや」를 용례(3)에서는 히라가나로 용례(4)는 한어 오노마토페「喧々(けんけん)」을 사용하여 시끄러운 정도가 심해진 것을 강조하고 있다. 즉, 첩어형 한어 오노마토페는 문장 속 수식하고 있는 대상의 의미 묘사를 높이는 강조용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はらはら】惴々(ずいずい)·潸々(さんさん)·悚々(しょうしょう)·戦々(せんせん)

(5) お政が坐舗を出るや否(いな)や、文三は今までの溜涙(ためなみだ)を一時に**はらはら**と落した。

(6)「隔てやせんよ、僕は。」と柳之助は惴々(はらはら)している。

(7)「悔しい」が忽ち上衝げて、扉を閉てると与に、お島は潸々(はらはら)と涙を零した。

(8) 御病氣にでもお成なさりはしまいか、と私は悚々(はらはら)いたして居りました。

(9) 怒られるときは、如何(どう)なるのかと戦々(はらはら)して、胸(むね)が一杯になって来るが。

작고 알갱이 혹은 얇은 것이 흩어져 떨어지는 모양이나 위태위태하여 조바심 내는 모습을 의미를 지닌 고유어 오노마토페「はらはら」는 모두 네 종류의 한어 오노마토페로 표현되었다. 용례(5)에 사용된 오노마토페「はらはら」는 고인 눈물을 한꺼번에 흘리는 모습을 묘사하기 위해 히라가나로 표기하고 있다. 한편, 용례(6)에서는 등장인물이 상대의 발언을 부정하면서 흠칫거리는 모습을「惴々」로, (7)은 눈물을 흘리는 인물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같은 의미의 한어 오노마토페「潸々」로, (8)의 용례에서는 병에 걸렸는지 여부를 묻고 반응을 조마조마하게 기다리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한어 오노마토페「悚々」와 함께 표기된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9)에서는 상대에게 혼나지 않을까 두려워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한어 오노마토페「戦々」를 덧대어 나타냈다.

【ぐづぐづ】遅々(ちち)·暗々(あんあん)·愚圖々々

(10) 九時頃まで火燵(こたつ)に入って、遅々(ぐづぐづ)と竦(すく)むでゐたのである。

(11) 必然(もじ)悶悩して碌に口も利けはしない、暗々(ぐづぐづ)した声をして、~

(12) イワーノウナは小脇に包を抱へて何か愚圖々々(ぐづぐづ)してゐだ。

고유어 오노마토페「ぐづくづ(ぐずぐず)」는 무르고 헐거운 모양, 판단이나 행동이 느리고 굼뜬 모양을 나타낸다. 이를 (10)에서는「어떠한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여 시간이 걸리는 모양」의 의미를 지닌 한어 오노마토페「遅々」를 사용하여 등장인물의 굼뜬 행동으로 인해 일의 진척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한편, (11)에서 사용한 한어 오노마토페「暗々」은「①은밀한 모양、확실하지 않은 모양」「② 어두운 모양」를 나타내는데 이 중 ②의 의미를 채용하여 등장인물의 명확하게 발언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행동을 묘사하고 있다. 용례(12)의 경우는 한자 본래의 뜻과는 관계없이, 그 음을 빌려서 표기한 경우이다. 명치기의

음역에 의한 한자표기는 외래어, 지명, 인명에 의한 것들이 대부분이며, 오노마토페의 경우는 의역에 의한 한자표기가 주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愚圖々々」의 음역표기는 「めちゃめちゃ」의 「滅茶々々」와 더불어 음역이 이미 고착화 된 경우라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이, 가나표기에 그치지 않고 일부러 한어를 덧대어 사용한 명치기 문학작가들의 시도는 당시 한어에 대한 높은 신뢰감이 엿보인다. 나아가 첩어형 한어 오노마토페는 고유어 오노마토페와 형태가 들어맞기 때문에 한자에 의한 의미규정을 위해 적극적인 사용을 보이고 있다.

다음은 한어 오노마토페의 자음 대응과 고유어 오노마토페로 대응된 경우를 살펴보고자 한다.

【陰々】いんいん·ぼんやり

(13) 柳之助は煙に捲かれながら昇って見れば~始終陰々(いんいん)として一種の気の曇っているのが。

(14) 二階はラムプが陰々(ぼんやり)点いていて、火も無ければ湯も無い。

【紛々】ふんぷん·ぱらぱら

(15) 寝れば夢を見る、起きていれば、唯其事が紛々(ふんぷん)と胸に集まる。

(16) 柳之助は困じ果てゝ、ぼりへ頭を掻くと、紛々(ぱらぱら)雲脂の飛ぶのが日向で能く見える。

상기의 용례(13)(14)와 (15)(16)은 첩어형 오노마토페 「陰々」과 「紛々」의 어형으로서 자음 「いんいん」 「ふんぷん」과 고유어 「ぼんやり」 「ぱらぱら」를 후리가나로 취하고 있다.

「陰々」은 「하늘이 흐리거나, 나무가 우거져서 주위가 어둑한 모양」의 뜻을 지니고 있는데, (13)에서는 류노스케가 피운 담배연기로 인해 주변이 자욱하여 사물의 형체가 명확하지 않은 장면으로 본래 어의(語義)에 부합되도록 사용하고 있다. (14)의 경우는 이층에 켜진 램프를 묘사하기 위해 고유어 「ぼんやり」를 후리가나로 취하고 있는데, 「ぼんやり」는 넋이 나가있거나 의식상태가 흐린 모양을 나타내는 의미로 「陰々」의 한어와의 병용표기로 어둠 속 홀로 쓸쓸이 켜진 램프에 대한 묘사를 구체적으로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용례(15)(16) 「紛々」은 ① 「일이 뒤섞이고 흐트러진 모양」 ② 「의견이 많이 오가는 모양」의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15)의 문장은 잊으려고 해도 죽은 아내가 자꾸 생각나 괴로운 심경을 묘사하는 장면으로 ①번의 의미로서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16)에서는 손톱으로 머리를 긁어 비듬이 여기저기 날리는 모양을 묘사하는 장면으로 고유어 「ぱらぱら」를

후리가나로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어의 후리가나 표기를 하는데 있어 한자의 자음 표기가 있으면서도 구태여 의미 표기를 후리가나로 사용한 것은 다의(多義)로 인한 의미한정 및 의미의 변화를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을 용례를 통하여 알 수 있었다.

4. 첩어형 한어 오노마토페의 전거 유무와 어의(語義)변화

여기에서는 네 작품에 사용된 첩어형 한어 오노마토페를 대상으로 고전 중국어의 유래로 보이는 한어 오노마토페 유형 중, 기본어기를 반복한 첩어형 한어 오노마토페에 착목하여 전거 유무를 밝히고자 한다.

고전 중국어에 있어 오노마토페의 사용상황을 개관할 수 있는 사전으로는『大漢和辞典』[14]를 사용하였으며, 일본어에 있어 한어 오노마토페의 사용상황을 밝히기 위해 일본 고전문헌에서 용례를 추출하여 수록한『日本国語大辞典』[15]에서 그 전거의 유무를 확인하였다. 나아가 2007년에 小学館에서 출판한 小野正弘『日本語オノマトペ辞典』의「漢語オノマトペ編」[16]에 수록된 용례와 비교를 통해 현대 일본어에 있어 한어 오노마토페의 사용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4> 대사전류의 등록 여부

용례수	大漢和辞典	日本国語大辞典	日本語オノマトペ辞典
143개	130개	118개	53개

첩어형 한어 오노마토페 중에서「呵々」「喃々」「喋々」「颯々」「轟々」와 같은 의음어·의성어인 경우는 세 사전 모두 등재된 것을 확인하였지만, 총 용례 143개 중『大漢和辞典』에 등재된 용례는 130개이며,「豊々(ほうほう)」「腴々(ゆゆ)」「霽々(れいれい)」등의 13종류의 용례는 등재되어 있지 않아 전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 한편,『日本国語大辞典』에서는『大漢和辞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13개의 용례를 포함한「遅々(ちち)」「墨々(ぼくぼく)」「忡々(ちゅうちゅ

14) 諸橋轍次(2000)『大漢和辞典』大修館書店
『詩経』을 비롯한『文選』『白氏文集』『論語』등의 고전 문헌에서 용례를 추출하여 수록한 사전
15) 小学館国語辞典編集部(2000)『日本国語大辞典』第二版、小学館
16) 小野正弘(2007)『日本語オノマトペ辞典』「漢語オノマトペ編」을 참조하였으며, 여기에는 첩어형 한어 오노마토페 225개만을 수록하였다.

う)」「盱々(くく)」등 25개의 첩어형 한어 오노마토페는 전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

『詩経』과『文選』등의 구체적인 자료에서 사용례를 확인할 수 있는「遅々」「墨々」「忡々」는『日本国語大辞典』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전거가 불분명하지만 명치기 문학작품에서 사용된 예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日本国語大辞典』에 표제어로서 등재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그것을 명치기 문학작품을 초출문헌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본 연구의 자료가 몇몇 작가의 작품에 한정되어 있기에 언제 어느 문헌에서 사용되었는지의 판단은 보다 다양한 자료의 검증을 거친 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어 오노마토페는 한자의 의미를 지닌 채 부사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오노마토페로서 인정 여부와, 고유어 오노마토페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것을 문제로 종래의 많은 사전류에 적극적으로 수록되어 있지 않고 참고정도로 하고 있다. 출간된 오노마토페 사전 중『日本語オノマトペ辞典』에서 비중 있게 다루고 있어, 등재여부를 확인한 결과 겨우 21개의 첩어형 한어 오노마토페를 수록하고 있었다. 현대 일본어 오노마토페 사전에 수록된 「鬱々」「悶々」「粛々」를 포함한 53개의 첩어형 한어 오노마토페는 적어도 현대 일본어로서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粛々(しゅくしゅく)】

(17) 襟元(えりもと)から**粛々(ぞくぞく)**と悪寒くなるのに。

고요하고 숙연한 모양을 나타내는 한어 오노마토페「粛々」는 위의 문장에서는 옷깃 언저리로부터 오싹할 정도로 느껴지는 추위와 고요한 주변상황을 표현하기 위해 한어 오노마토페「粛々」가 사용되었으며, 현대 일본어에서 정치와 관련된 장면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 円満字二郎의 조사에 의하면 인터넷에서「粛々」를 검색한 결과, 2010년 1년간「粛々」가 사용된 신문기사는『朝日新聞』213건,『読売新聞』205건,『毎日新聞』176건, 합계 594건으로, 한어 오노마토페는 오늘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용이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17]

● 処所多霜雪　　胡風春夏起
翩翩吹我衣　　**粛粛**入我耳

하지만, 위의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고전 중국어로서의「粛々」는 새의 날갯짓 소리 혹은 바람이 세차게 부는 소리를 나타내는 의음어로서 자주 사용되고 있으며, 오늘날의 엄숙함을

17) 円満字二郎(2011)『政治家はなぜ「粛々」を好むか』新潮社

나타낼 시의 사용은 극히 드물다.

● 鞭声**粛粛**夜過河　　暁見千兵擁大牙
遺恨十年磨一剣　　流星光底逸長蛇

에도시대에는 중국 고전을 공부하여 자신의 작품에 한시 및 한문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사용한 작가가 다수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중국 고전에 정통한 문인으로는 頼山陽(라이산요)를 들 수 있다. 위의 한시는 그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여기에 사용된 「粛々」는 적군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구두소리를 최대한 줄여 적진으로 기습하려는 무사를 묘사하고 있다. 나아가 頼山陽는 이 구절의 「粛々」는 「조용하고 은밀한 모양」이라는 의미와 동시에 어둠 속에서 가끔 울리는 날카로운 구두소리를 엄숙한 이미지를 갖추게 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하지만 중국 고전에 정통한 頼山陽가 본래의 의미를 충분히 고려하여 표현을 하고자 하여도 의음어로서의 성격까지 독자에게 전달하기 어려움이 따랐을 것으로 생각된다.[18]

【蕭々(しょうしょう)】

(18) 時雨(しぐれ)はと、**蕭々(しょぼ)**黒い風の隙洩るにつれて、身顫の出るほど寂寥(せきりょう)は外から逼つて來る。

위의 용례 (18)의 「蕭々」는 가을비가 촉촉이 내리는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약 300년 존속되었던 당 왕조의 시대에 활약했던 시인의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한어 오노마토페 「蕭々」는 현대 일본어 표현으로서 ① 「쓸쓸한 모양」② 「눈이나 바람, 혹은 강물이 흐르는 소리」의 의미로 12세기 후반부터 夏目漱石, 芥川竜之介 등과 같은 명치기 작가의 작품에 이르기까지 꾸준한 사용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중국 고전을 살펴보면 다른 의미용법을 보이는 예가 있다.

● 無辺落木**蕭蕭**下　　不尽長江滾滾来
● 揮手自茲去　　**蕭蕭**班馬鳴

위의 예에서는 바람도 비도 아닌 낙엽이 쓸쓸히 지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별을 고하며 떠나가는 장면을 바라보는 말의 울음소리를 「蕭々」로 표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바람은

18) 한자 숙어의 대부분을 일본인은 音読み(음독)으로 읽기 때문에 「粛々」의 경우, 중국어 발음 「sùsù」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 즉, 일본인에게는 새의 날갯짓 소리, 바람 소리 등이 「しゅくしゅく」로 들리지 않기 때문에 의음어로서의 의미는 누락되어 수용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ひゅうひゅう」, 비는 「さあさあ」, 말은 「ひひん」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한어 오노마토페 「蕭々」를 통해 주변의 고요함을 한층 더 강조하여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새의 날갯짓 소리 「粛々」와 말의 울음소리 「蕭々」와 같이 사람이나 동물, 사물이 내는 소리를 모방한 의음어는 감각적이고 응축된 의미를 표현하고 있어 모국어 화자가 아닌 이상 일본인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즉, 「粛々」와 「蕭々」의 본래 중국어 발음으로 중국어 화자에게는 새의 날갯짓 혹은 바람소리 그리고 슬프게 우는 말의 소리라고 감각적으로 알 수 있지만, 이를 일본어화 한 음독(音読み) 「しゅくしゅく」 「しょうしょう」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용과정에서 누락된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悶々(もんもん)】

(19) 夕暮の凄寥(ものさびしさ)はともかくも例の散歩で漸く凌(しの)いで、夜の更に此**悶々**に澆(そそ)ぐに一合の酒を。

현대 일본어에서는 「悶々」을 「걱정으로 고민되는 모양, 마음이 울적한 모양」을 나타낼 때 사용되고 있다. 용례(19)와 같이, 명치기의 문헌에서도 현대 일본어의 의미용법과 다르지 않다. 하지만 중국 고전에서 용례를 찾아보면 「悶々」에는 ① 「무지(無智)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모양」 ② 「마음은 어둡고 밝게 헤아리지 못하는 모양」 ③ 「몹시 괴로운 모양」의 다양한 상태를 나타낼 때 사용되고 있어, 이 중 에서 명치기에 유입될 시, 일부만 수용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 其政悶悶。
- 其政教實大、悶悶昧昧、似若不明也。(老子)

한편 「悶々」은 중국 노자의 『도덕경』을 비롯한 다양한 고전 문헌에서 전거가 확인되고 있다. 특히, 위의 용례문과 같이, 「무지(無智)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모양」의 철학 및 정치에 관련된 의미로 사용된 「悶々」의 경우, 일본 고전문헌에서는 전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

명치기는 세간의 표기 습관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해도 혼란의 폭이 컸기 때문에,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 개성을 드러낸 표기가 속출하던 시기였다. 이러한 시기에 모든 한자에 후리가나가 동반되는 총루비 형식의 출판물이 유행하였기 때문에 작가는 한어 오노마토페와 고유어 오노마토페의 조합을 통해 묘사하고자 하는 장면을 원하는 대로 독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명치기 작가 오자키 코요는 「日本語は言葉が少ないから、緻密な點まで書き分け、言葉の変化を求めようと云う時には、どうしても豊富な漢語を多く用いなければならない必要が起こって来る」라고 밝힌 바가 있다.

5. 나가며

본 연구에서는 명치기 문학작품 속 첩어형태의 한어 오노마토페 용례를 대상으로 고전 중국어 오노마토페가 문장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그 특징적인 면을 살피고자 하였다. 나아가 중국 고전문헌 및 일본 고전문헌의 용례를 수록하고 있는 대사전과 현대 일본어 오노마토페 사전을 토대로 그 전거의 유무를 밝히고 수용과정에서 의미용법에 변화를 보인 개별어를 분석하였다.

먼저, 속어적 성향이 강한 오노마토페에 한어를 적절하게 대응시켜 전체적인 문장의 격조를 떨어뜨리지 않고 문체를 완성한 명치기 작가들의 시도를 엿볼 수 있다.

또한, 첩어형 한어 오노마토페는 문장 속 등장인물의 심정표현과 자연묘사에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문장에서 오노마토페가 수식하고 있는 대상의 구체화·한정 및 구분을 도모하기 위해 한어 오노마토페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나아가 첩어형 한어 오노마토페는 수식하고 있는 대상의 의미 묘사를 높이는 강조용법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한어 오노마토페가 일본어로 수용될 시, 사람이 느끼는 다양한 감정을 나타내는 의정어(擬情語)의 경우는 본래의 의미가 유지되어 수용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자연계의 소리 및 동물의 울음과 같은 의음어로서의 의미나 사물의 모양 및 상태를 묘사하는 의미는 소실되어 유입된 것을 알 수 있었다.

【參考文獻】

李仁淳(2009)「漢語オノマトペをめぐって-開巻驚奇侠客伝-」『日語日文学研究』第70輯, pp.199-217

崔玲愛(2007)「『詩經』「国風」疊語의 音聲象徵 硏究」『中國語文學論集』第47號, pp.83-105

현영미·이경규(2012)「二葉亭四迷『新編 浮雲』에 나타난 오노마토페의 한자표기에 관한 일고찰」『일본어교육』제61집, pp.101-115

新井理絵(2010)「近代オノマトペの表記の流れについて-徳田秋声の作品を中心に-」『日語日文学研究』第74輯

上野力(1982)「明治中期における漢語の使用」『常葉学園短期大学常葉国文』第6号, pp.69-78

円満字二郎(2011)『政治家はなぜ「粛々」を好むか』新潮社

角川賢一(1993)「日本語の「擬似オノマトペ」-日本語と中国語の接点-」『オノマトピア』勁草書房, pp.145-218

呉川(2005)「川端康成の『雪国』におけるオノマトペ」『オノマトペを中心とした中日対照言語研究』白帝社, pp.55-99

佐藤友紀(2003)「明治期における擬音語·擬態語の漢字表記」『日本アジア研究』第3号, pp.43-57

鈴木泰(1982)「タリ活用形容動詞の通時的変化傾向とその要因」『武蔵大学文学会雑誌』第13巻, pp.89-121

鈴木修次(1979)「擬態語の中の漢語」『漢語と日本人』みすず書房, pp.139-179

玉村文郎(1973)「尾崎紅葉·幸田露伴の漢字-『多情多恨』と『五重塔』-」『漢字講座』9,明治書院, pp.163-185

中里理子(2002)「尾崎紅葉の言文一致文-「多情多恨」を中心に-」『上越教育大学研究紀要』第9巻, pp.758-772

宮武利江(2015)「漢語オノマトペの日本語における受容と変化」『文教大学言語文化研究科紀要』創刊号, pp.43-60
山田孝雄(1940)『国語の中に於ける漢語の研究』宝文官出版
劉玲(2004)「漢語オノマトペの受容に関する研究」筑波大学博士学位論文

<사전류>
李仁淳(2005)『漢語形容動詞辞典』제이앤씨
天沼寧(1974)『擬音語·擬態語辞典』東京堂出版
小野正弘(2007)『日本語オノマトペ辞典』小学館
野口宗親(1995)『中国語擬音語辞典』東方書店
愛知大学中日大辞典編纂処(1987)『中日大辞典』大修館書店
諸橋轍次(2000)『大漢和辞典』大修館書店
小学館国語辞典編集部(2000)『日本国語大辞典』第二版、小学館

논문투고일 : 2016년 12월 30일
심사개시일 : 2017년 01월 06일
1차 수정일 : 2017년 02월 01일
2차 수정일 : 2017년 02월 05일
게재확정일 : 2017년 02월 15일

〈要旨〉

고전 중국어 오노마토페의 일본어 수용에 관한 연구

－명치기 문헌에 나타난 첩어형태의 용례를 중심으로－

현영미·이경규

본고는 명치기 문학작품 속 첩어형태의 한어 오노마토페 용례를 대상으로 문장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특징적인 면을 살피고자 하였다. 나아가 중국 고전문헌 및 일본 고전문헌의 용례를 수록하고 있는 대사전류를 토대로 그 전거(典據)의 유무를 밝히고, 수용과정에서 의미용법에 변화를 보인 개별어를 분석하였다. 먼저, 속어적 성향이 강한 오노마토페에 한어를 적절하게 대응시켜 전체적인 문장의 격조를 떨어뜨리지 않고 문체를 완성한 명치기 작가들의 시도를 엿볼 수 있다. 또한, 문장에서 오노마토페가 수식하고 있는 대상의 구체화·한정 및 구분을 도모하기 위해 한어 오노마토페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또한 한어 오노마토페가 일본어로 수용될 시, 사람이 느끼는 다양한 감정을 나타내는 의정어(擬情語)의 경우는 본래의 의미가 유지되어 수용되지만, 자연계의 소리나 사물의 모양이나 상태를 묘사하는 경우, 의미 일부는 소실되어 유입된 것을 알 수 있었다.

The Adoption of Classical Chinese Onomatope in Japanese Literature

－ Centered on the Examples of the Usage of Reduplication in Meiji-Period Literatures －

Hyun, Yeong-Mi · Lee, Gyeong-Gyu

This paper has explored the characteristics emerged from the way in which reduplication-style Chinese onomatope functions in sentence, centered on the examples of its usage that appear in literary works of the Meiji period. Further, it has also examined the overall historical background behind the genesis and subsequent usage of Chinese onomatope on the basis of dictionaries containing the associated examples of classical Chinese and Japanese literatures, and then analyzed individual words whose meaning changed in the process of their adoption.

First, the Meiji-period writers were deemed to have attempted considerably to polish and then achieve the originality of their own writing style, in order that its unique characteristics in sentence can be preserved, by matching Japanese “native” onomatope － colloquial/informal － with Chinese characters in an appropriate manner.

Second, Chinese onomatope has also been actively adopted in order to enable onomatope-modified subject(s) to be specified, limited and distinguished.

Last, when adopted in Japanese, Chinese onomatope has its meaning, especially associated with words that depict diverse psychological and bodily feelings, such as gijōgo (psychomime (擬情語)), remain relatively intact. On the other hand, the onomatope that depicts natural sound, shape and state of object(s) is found to be adopted with their original meaning partially changed.